

■ 피델 카스트로의 아바나 도착 연설

피델 카스트로

이 글은 피델 카스트로가 1959년 1월 8일 아바나에서 행한 첫 연설의 녹취록을 번역한 것이다. 1959년 1월 1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산티아고 지방에 있던 카스트로는 바티스타가 전권을 칸티요에게 넘겨주고 도미니카공화국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급히 ‘반군 라디오 방송’을 찾아서 혁명의 승리를 알리는 한편, 칸티요의 권력 장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령을 내리고, 체 게바라와 시엔푸에고스에게 수도로 진격하여 군사 기지를 점령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당시 여론은 이미 카스트로에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체 게바라와 시엔푸에고스는 정부군의 저항 없이 각각 라 카바냐(La Cabaña)와 쿠바군 총사령부가 있는 콜롬비아(Columbia)를 접수했다. 한편, 카스트로는 1월 3일 산티아고에서 법조인이자 정치인인 마누엘 우르티아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정부를 구성하자, 미국은 즉시 이를 승인했다.

이러한 사전 정비작업을 마친 후, 1959년 1월 8일 자발적이고 대대적인 쿠바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아바나에 입성한 카스트로는 그날 저녁 콜롬비아로 가서 카스트로 특유의 긴 대중 연설을 했는데, 이 글은 그 연설문 녹취록을 옮긴 것이다. 녹취록이라서 간혹 문장의 호응이 불완전한 곳이 있지만, 그 당시 아직도 불안정한 혁명세력이 당면한 현안이 잘 드러나 있다.

연설문 원문 출처: <http://www.cuba.cu/gobierno/discursos/>



1959년 1월 8일 저녁, 아바나 근교에 위치한 쿠바군 총사령부 콜롬비아(Columbia, 현재 명칭은 '자유 도시')에서 대중 연설을 하는 피델 카스트로

동포 여러분!

오늘 저녁,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1956년 11월 30일 산티아고에서 시작된 지난한 투쟁보다 더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귀를 기울이고, 혁명 전사들도 귀를 기울이고, 우리 손에 운명이 달린 정부군 병사들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를 타도했습니다. 무한히 기쁩니다. 그렇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이 쉬울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앞으로가 훨씬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모든 혁명가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면 항상 참담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과도한 낙관론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반군’이¹⁾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독재정권이 전쟁에서 졌을까요? 병사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반군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장교든 거짓말을 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지들에게도 경고했습니다. 어느 부대에서나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부대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장교와 사병들에게 결코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니,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항상 진실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람직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 수도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 콜롬비아에 있습니다. 혁명군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구성되었고, 상당수의 국가가 이미 우리를 승인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국민들이 활짝 웃고 있지만, 국민들이 기뻐하지만,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1) 쿠바 혁명군의 명칭



1959년 1월 혁명군을 반기는 아바나 시민들

수록, 국민들의 기쁨이 상상을 초월할수록 우리들의 걱정도 그만큼 큼니다. 왜냐하면 역사 앞에, 쿠바 국민 앞에 우리들의 책임 또한 그만큼 더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혁명은 이제 전투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누가 혁명의 적이 될까요? 장차 누가 승리를 거둔 국민 앞에서 혁명의 적이 될까요? 앞으로 쿠바 혁명이 직면할 최악의 적은 바로 우리 혁명가들입니다.

저는 항상 반군 전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적이 없을 때, 전쟁이 끝났을 때, 혁명의 유일한 적은 우리들일 것이다. 그래서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반군 병사에게 엄격할 것이며, 그 누구보다도 반군 병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혁명의 성공도, 실패도 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류의 혁명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혁명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3월 10일까지는 혁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들먹거렸습니다. 모두들 혁명가였습니다. 여기 있던 정부군 병사들도 ‘3월 10일 혁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웃음)

혁명가들 얘기도 우리는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내 기억으로 혁명가에 대한 첫 인상은, 공부도 하고 조금 성숙해져야 진짜 혁명이 무엇인지, 진짜 혁명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들이 어렸을 때 들은 혁명가에 대한 첫 인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무개는 혁명가였다. 무슨 무슨 전투에 참여하고, 작전에 참여해서 폭탄을 던졌다.” “아무개는 혁명가였는데...” 그래서 혁명가라는 신분이 있다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혁명을 팔아먹으려는 혁명가들이 있었습니다. 폭탄을 한 개 던졌다, 폭탄을 두 개 던졌다 하면서 혁명가 타이틀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관직을 얻으려고 장관을 쫓아다니고, 예전에 한 일의 대가를 바라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혁명은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현재의 혁명이 최초의 혁명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들이 이 혁명을 실패로 이끌지만 않는다면... (“안 됩니다”는 함성과 함께 박수)

어릴 적 제 인상에 남은 혁명가들은 허리에 45구경 권총을 차고 다녔습니다. 존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고 과시하며 겁을 주려고 했습니다. 위압적인 태도로 고위 공무원 사무실에 출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혁명을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혁명은 없었기 때문이다. 진짜 혁명가는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

입니다.

이 혁명을 일으킨 우리들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무슨 목적으로 혁명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마음속에 야심이나 권력욕이나 고귀하지 못한 목적을 숨기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이 혁명에 참가한 전사들은 이상주의자, 아니 이상주의를 앞세워 다른 목적을 추구하지나 않았는지, 이 혁명을 일으킨 우리들은 독재를 타도하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 호사스런 말안장에 앉아 거들먹거리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 왕처럼 살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 대저택을 소유하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들이 혁명으로 독재를 타도했기 때문에 앞으로 삶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 장관을 자르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려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 아니면 몇 사람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려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 정말 우리들은 사심이 없었는지, 진정한 희생정신을 발휘했는지, 정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헌신하려고 했는지, 온몸을 바쳐 진정한 혁명가의 의무를 완수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돼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긴 박수)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양심에 쿠바와 우리들과 국민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투대열(columna)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당한 병력의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가장 강고한 전투대열이 있다. 최정예 부대가 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부대가 있다. 그 부대는 바로 국민이다! (박수)

국민을 능가하는 장군은 없습니다. 국민을 능가하는 군대도 없습니다. 저에게 어떤 부대를 지휘하고 싶느냐고 물어본다면, 이렇

게 대답하겠습니다. 국민을 지휘하고 싶다. (박수) 왜냐하면 국민이야말로 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도 바로 국민입니다. 우리들은 탱크도 없었습니다.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사관학교도 없었습니다. 보충대도 없었습니다. 신병훈련소도 없었습니다. 사단도, 연대도, 중대도, 소대도, 분대도 없었습니다. (긴 박수)

그러면 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겠습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오로지 국민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거나, 저 부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 국민이 선두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혁명은 일개인인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령관이나, 장교나, 전투대원이나, 중대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혁명의 관심은 바로 국민입니다. (박수) 혁명에서 승리하는 것도 국민이요, 패배하는 것도 국민입니다. 지난 7년 동안 공포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바로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쿠바공화국 수립 이래 마차도나 바티스타와 같은 독재자들이 지배 아래서 공포에 떨었듯이, 앞으로 10년, 15년, 20년 아니 자자손손 공포 속에서 살 것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사람도 바로 국민입니다. (긴 박수)

우리들이 이 혁명을 잘 이끌어나간다면, 혁명은 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전의 혁명, 그 이전의 혁명, 그 이전의 이전의 혁명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어떤 실수든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법입니다. 어떤 정치적 실수든 머지않아 대가를 지불하기 마련입니다.

상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혁명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국민은 아직도 투쟁해야 할 대상이 많은 사실을 조금 잊고, 그렇게 기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열망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이미 공포와 억압과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평화입니다. 자유가 있는 평화, 정의가 수반되는 평화, 권리를 향유하는 평화입니다. 아무도 대가를 치루는 평화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티스타는 평화를 얘기하고, 질서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평화는 아무도 원치 않았습니다. 평화의 대가로 복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은 원하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독재가 없는 평화, 범죄가 없는 평화, 검열이 없는 평화, 박해가 없는 평화입니다. (긴 박수)

지금 이 순간 가장 기뻐할 사람은 우리 어머니들일 것입니다. 정부군 병사의 어머니, 혁명가의 어머니, 일반 시민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마침내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안도할 것입니다.

오늘 쿠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재차 얘기하지만, 오늘 쿠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평화를 교란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평화를 교란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아무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쿠바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수백만 쿠바 어머니들의 기쁨과 안도감을 저해하는 사람은 모두 범죄자이며 배신자입니다. (박수) 평화를 위해 무언가를 단념할 각오를 하지 않은 사람, 지금 이 시각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지 않은 사람은 범죄자이며 배신자입니다. (박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동포 여러분 앞에서 맹세합니다. 우리 동지든, 우리 운동이든²⁾, 저든, 쿠바의 평화를 조금이라도

저해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들은 우리들을 뜻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일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저는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면서 몇 번이나 이를 증명했습니다. 동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도덕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와 ‘피델 카스트로 만세’라는 환호)

제가 이런 말을 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혁명가들입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절, 그러니까 마차도 정권이 몰락한 후입니다. 그 투쟁이[반마차도 투쟁 - 주] 남긴 가장 큰 해악은 아마도 혁명 그룹의 변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가 서로에게 총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그 결과 바티스타가 등장해서 11년 동안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7월 26일 운동’이 조직됐을 때,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치러할 희생이 제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 투쟁이 제아무리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긴 투쟁이었습니다. 2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우리가 2년이란 세월을 한가하게 보낸 것은 아닙니다. 격렬한 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맨주먹으로 다시 투쟁하기 시작한 이래 눈앞에 희생자들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공화국 수도에 들어올 때까지 한 가지 생각 때문에 마음 든든했습니다. 바로 ‘7월 26일 운동’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으며, 민중의 공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수) ‘7월 26일 운동’은 쿠바 젊은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박수) 이처럼 크고 강력한 조직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를 수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혁명조직의 변성으로 인한

2) ‘7월 26일 운동’을 가리킨다.

끔찍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단 하나의 혁명조직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혁명조직이든, 다른 혁명조직이든, 26이든, 27이든, 50이든, 그 어떤 조직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에라 마에스트라에서 투쟁한 우리들이나 에스캄브라이에서, 피나르 델 리오에서 싸운 우리들이나 결국은 하나입니다.³⁾ 젊은이들이고, 같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혁명 조직이 6개라고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박수)

우리 조직은 첫 조직에 불과합니다. 단지 처음으로 몬카다에서 싸운 조직이고, 12월 2일 그란마 호로 상륙한 조직입니다. (박수) 그리고 1년 이상 독재와 전면적으로 맞서 홀로 싸운 조직입니다. (박수) 12명에 불과한 조직이었으며, 반군의 기치를 높이든 조직이었으며, 국민들에게 싸우면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 준 조직이었으며, 쿠바에서 일어난 혁명에 대한 잘못된 가설을 타파한 조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모두들, 사병이나 하사관과 공모하여 무기를 아바나에 들여왔지만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박수) 우리들이 와서, 그것은 투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까지 그렸습니다. 투쟁은 다른 것이어야 하며, 새로운 전술과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들이 실천에 옮긴 전술이고 전략이었으며, 끝내는 쿠바 역사상 국민이 거둔 가장 훌륭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박수)

3) 에스캄브라이에서 싸운 조직은 ‘혁명지도부’(Directorio Revolucionario)이다. 이 조직은 1955년 말 호세 안토니오 에체바리아가 아바나에서 조직한 대학생 지하투쟁그룹으로, 1957년 3월 13일 대통령관저를 습격하여 바티스타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 때 에체바리아는 정부군에게 사살되었다. 그 후, ‘혁명지도부’는 쿠바 중심부의 에스캄브라이 산에서 게릴라 활동을 전개했다. ‘혁명지도부’는 1956년부터 피델 카스트로와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1961년 중엽에는 ‘7월 26일 운동’, 인민사회당(Partido Socialista Popular)과 함께 ‘통합 혁명 조직’(Organizaciones Revolucionarias Integradas)을 만들었다.



아바나 구 도심에서 바라본 라 카바냐. 정식 명칭은 ‘산 카를로스 데 라 카바냐 요새’이다. ‘엘 모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국민 여러분이 솔직하게 말해주시 바랍니다. (박수. “맞습니다”라는 환호)

실질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7월 26일 운동’은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조직이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맞습니다”라는 환호) 그러면 어떻게 투쟁이 끝났습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반군, 우리 군대의 명칭입니다, 시에라 마에스트라에서 시작된 반군은 독재정권이 무너졌을 때, 오리엔테 지방 전부와 카마구에이 전부와 라스 비야스 일부와 마탄사스 전부와, 라 카바냐와 콜롬비아와 경찰 본부와 피나르 델 리오를 장악했습니다.(박수)

무장 세력이 협력하여 투쟁을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투 대열은 수 천 명의 정부군과 비행기에 쫓기면서 카마구에이 평야

를 종단하여 라스 비야스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반군은 라스 비야스에서 카밀로 시엔푸에고스 사령관이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 박수) 왜냐하면 라스 비야스에서 에르네스토 게바라 사령관이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 박수) 왜냐하면 1월 1일 칸티요가⁴⁾ 배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죽여라”라는 함성) 새해 첫 날, 그곳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카밀로 시엔푸에고스 사령관에게 500명을 데리고 수도로 진격해서 콜롬비아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박수) 에르네스토 게바라 사령관이 라스 비야스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로 진격해서 라카바냐를 장악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박수)

전(全)연대, 중요한 군사 거점은 모두 반군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군사 거점을 넘겨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저쪽으로 가라, 너는 그쪽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희생,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조직이 바로 이런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투쟁하는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훈을 세우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싸웠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투쟁했기 때문입니다. 아바나에는 그 어떤 ‘시에라 [마에스트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혁명 과업을 수행하다가 살해된 수 백 명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아바나에는 그 어떤 ‘시에라 [마에스트라]’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혁명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4) 에올로히오 칸티요(Eulogio Cantillo, 1914~?) 장군은 1958년 말 피델 카스트로와 만나 1958년 12월 31일 오후 3시에 봉기를하기로 협정을 맺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959년 1월 1일 새벽 바스티스타는 도망가면서 칸티요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고, 권력을 장악한 칸티요는 상원의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대법원장을 대통령으로 임명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였으나 결국은 대세에 밀려 피델 카스트로에게 권력을 내주었다. 그 후 혁명재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칸티요는 60년대 중반 마이애미로 이주하여 반카스트로 운동에 앞장서다 70년대에 사망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평가하는 것 뿐입니다. 이 투쟁에서 ‘7월 26일 운동’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선거를 이야기하고, 선거만능론을 이야기하던 당시에 어떻게 국민을 이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글을 하나 써야 했습니다. 제목은 ‘모든 것 앞에서’(Frente a todos)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들은 모든 의견에 반대하고, 우리들의 혁명 테제, 7월 26일에 수립한 이 혁명의 전략을 옹호해야 했습니다. ‘7월 26일 운동’이 조직한 반군이 가장 중요한 거점을 수중에 넣어서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이 혁명의 정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7월 26일 운동’은 전쟁의 준칙을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적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혁명이 아마도 전쟁 포로를 살해하지 않는 세계 최초의 혁명이었을 것입니다. (긴 박수) 부상자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니다. 고문하지도 않았습니니다.(박수) 이러한 준칙은 반군이 수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혁명은 단 한 명의 장군도 배출하지 않은 세계 유일의 혁명입니다. 대령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인 칭호, 동료들이 붙여준 칭호는 사령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어도 이 칭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아직도 사령관입니다. 다른 칭호는 원치 않습니다. (박수)

그 도덕적인 효과는, 이 전쟁을 시작한 우리들이 군대식 승진 절차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사령관보다 더 높은 계급장을 붙일 엄두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서는, 사령관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니다만.

국민들은 제가 숨김없이 이야기한다는 점에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투쟁했기 때문에, 제가 시민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기 때문에 큰소리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박수) 그

리고 국가 이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쿠바혁명을 위협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그 어떤 타협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

모든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도덕적 권위가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공적이 큰 사람은 공적이 적은 사람에게 얘기할만한 권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덕적 선결조건에서 동등해야만 공훈에서도 동등할 수 있습니다. 카밀로 시엔푸에고스 사령관이 -2년 1개월 동안 투쟁한 베테랑입니다-



에피헤니오 아메이헤라스 사령관

때 혁명은 끝났습니다. 또 이 전쟁에서 3형제를 잃고, 그란마의 베테랑이며, 해방전쟁에서 사령관이 된 에피헤니오 아메이헤라스 사령관이⁵⁾ 경찰 총수가 되었을 때 혁명은 끝났습니다. (박수) 에르네스토 게바라 사령관이 -그란마 원정에 참여한 진정한 영웅이며, 쿠바에서 가장 험준하고 가장 높은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에서 2년 1개월 동안 투쟁한 베테랑입니다- 라 카바냐를 점수했을 때 혁명은 끝났습니다. (박수) 여러 지방에서 각 연대 전초부대에 배치된 사람들이 가장 큰 희생을 치렀을 때, 이 혁명에서 가장 용감히 싸웠을 때 혁명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이 용감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공적을 기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적을 기릴 줄 모르는 사람은 야심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수) 타인

5) 에피헤니오 아메이헤라스(Efigenio Ameijeiras, 1931~)는 그란마 호에 탑승하여 시에라 마에스트라에서 투쟁한 혁명전사이다. 혁명 성공 이후 군에서 요직을 맡았으나 1966년 군과 당에서 축출되었다.



혁명정부 초대 대통령 마누엘 우르티아가 1959년 2월 16일 카스트로 수상임명장에 서명하고 있다.

의 공적을 무시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요구만 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화국, 다시 말해서 혁명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야심이나 개인주의로 혁명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닙니다”라는 함성) 국민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람은 바로 국민입니다. (“자유, 자유”라는 함성) 국민의 관심사는

첫째로 자유입니다. 그들이 탈취해간 권리입니다. 그리고 평화입니다. 이제 이 모두를 성취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국민은 독재정권이 빼앗아간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박수)

국민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정직한 정부입니다. 국민의 관심사는 정직한 정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라는 함성) 여기, 그런 정부가 있습니다. 정직한 법조인이 공화국 대통령입니다.⁶⁾ (박수) 국민의 관심사는 젊고 깨끗한 사람이 혁명정부의 장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라는 함성) 여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혁명정부의 장관을 한 사람, 한 사람 분석해보고 도둑이나 범죄자나 부패한 사람이 있으면 제게 말해주십시오. (“없습니다”라는 함성)

6) 마누엘 우르티야(Manuel Urrutia, 1901~1981)를 가리킨다. 우르티야는 법조인으로 바티스타 독재정권에 저항했으며, 혁명정부의 초대 대통령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카스트로와 갈등 끝에 1959년 7월 17일 대통령직을 사임한 뒤 미국으로 망명했다.

쿠바에는 정직함이나 능력으로 따져 장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장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장관은 열넷이나 열다섯이나 열여섯쯤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개, 아무개가 아니라 누구든 젊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박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관에 임명된 사람들이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지, 아무개 아무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아무개 아무개는 혁명과 공화국에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장관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 나라를 피로 물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라는 함성) 장관직 서너 자리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 나라를 피로 물들이고 평화를 교란시킬 단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라는 함성) 만일 쿠바 국민이 구성한 현재의 각료들이 무능력하다면 조만간 국민들이 축출할 것입니다.⁷⁾ 단순히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로 축출할 것입니다. (박수)

그러나 각료들이 부적합한데도 그 누구도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쿠데타나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곧 선거를 치를 것인데, 그것으로도 안 된다면 국민들이 자유롭게 최종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바스티스타가 선거를 80일 앞둔 시점에서 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권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고, 그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애국적이었습니다. 그로써 여기서는 영원히 군사 쿠데타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폭력사태가 종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수)

이런 말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을 선동하거나, 혼란을 야기하거나, 분파주의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야심을 품은 사람을 국민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박수) 제 입장을 말하

7) 카스트로는 동음이의어(‘쫓아내다, 축출하다’와 ‘투표하다’)로 말솜씨를 부리고 있다.

면, 제가 지휘하고 싶은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장 훌륭한 부대이고, 무장 대원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국민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가장 먼저 할 일은, 혁명이 위험하게 보일 때, 국민을 부르는 것입니다. (박수) 국민에게 얘기할 때 피를 덜 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을 쏘기 전에 수 천 번이고 국민을 불러 이야기함으로써 총을 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작정입니다. 저는 국민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국민이 원한다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총성이 울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박수) 왜냐하면 여론은 비상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재가 없는 곳에서는 그러합니다. 독재시절에 여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 시대에는 여론이 전부입니다. 총은 여론 앞에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습니다. (박수) 카밀로, 지금 내가 잘하고 있죠? (“카밀로 만세”라는 함성)

국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예상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미리 알리면 혁명이 당면한 몇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그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혁명을 공고히 하려면 쿠바인의 피를 단 한 방울이라도 더 흘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 혁명을 외국에서, 전 세계에서 경탄하고 있는데, 3주나 4주안에, 한 달이나 일주일 안에, 이 혁명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시 쿠바인들이 피를 흘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혁명은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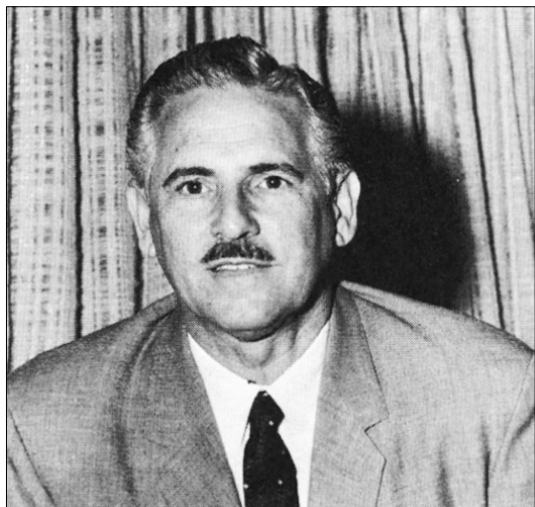
우리가 12명에 불과한 단체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명이었을 때, 직면한 것은 모두 전투,

전투, 전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전투에서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비행기가 있고, 탱크가 있고, 대포가 있고, 대규모의 무장병력이 있고, 해군이 있고, 수많은 전투부대가 있고, 막강한 작전권이 있고 (“국민도 있습니다”, “국민도 있습니다”라는 합성), 예, 국민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려던 말을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두를 가지고 있는 오늘 전투가 있을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투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리라 다시 한 번 시에라 마에스트라로 들어가서, 12명의 동지들과 함께 들어가서 탱크와 맞서 싸우렵니다. 탱크를 몰고 와서 한 방 쏘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아닙니다. (박수)

우리를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라고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박수) 여론입니다. 그리하여 야심가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벌써부터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을 사전에 규탄하는 것입니다. (박수)

오늘은 특정 개인에 대한 공격을 삼가렵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인 논쟁을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논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자신도 있고, 필요하다면 진실로 토론할 준비도 돼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전투에 참가한 대중들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대다수 지도자들을 그러하겠지만, 대다수 지도자들, 예를 들어 저기 카를로스 프리오 소카라스가⁸⁾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8) 카를로스 프리오 소카라스(Carlos Prío Socarrás, 1903~1977). 쿠바 16대 대통령(1948~1952년 재임). 바티스타의 쿠데타로 실각한 후 미국으로 망명, 그란마호 구입 자금을 모금해주었으며, 1959년에는 쿠바를 방문하여 쿠바혁명을 지지했다.



카를로스 프리오 소카라스

그의 말처럼 무조건적으로 혁명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쿠바에 왔습니다. (박수) 그 어떤 일에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불만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조각에 사소한 불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청렴하고 젊은 사람으로 정부를 구성해야 하며, 일할 수 있도록 신임해줄 만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다른 조직의 지도자들도 마음의 자세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전투 대중, 오로지 이상에 이끌려 싸움에 참가한 사람들, 여러 조직에서 전투에 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태도는 지극히 애국적이며, 매우 고귀하고 매우 혁명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항상 국민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전을 일으키려고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을 전 국민이 심판하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박수) 그런 사람들은 투쟁대열에서 버림 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힘에 도전하고, 이성에 도전하고, 조국의 권리에 도전하고, 전 국민에게 도전하려는 정말로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박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척 궁금하고 또 국민들도 무척이나 궁금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대답해주십시오. 지금 무엇을 위해 무기를 은밀한 곳에 숨기는 것입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무기를 밀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려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란 무기를 숨기고 있는 특정 혁명조직 분자들, 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자들, 무기를 밀매하는 자들입니다. (“색출하라”는 함성) 반군이 들었던 무기는 모두 병기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단 한 자루도 손대지 않았습니니다. 집으로 가져가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니다. 모두 병기고에 넣어두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니다. 피나르 델 리오에서도 그렇고, 라 카바냐, 콜롬비아, 마탄사스, 산타 클라라, 카마구에이, 오리엔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를 숨기려고 차량에 싣지도 않았습니니다. 무기는 당연히 병기고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또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과 지성으로, 강제가 아니라 여론에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을 믿고, 힘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했더라면 국민에게 말씀드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무기를 찾으러 나섰을 것입니다. (박수)

그러나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은, 혁명전사들,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이 그런 술수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영웅심으로 우쭐거리지 말고 국민들 편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니다. 무기는 왜 숨깁니까? 누구와 맞서 싸우려고요?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혁명정부와 맞서려고요? (“안 됩니다”라는 함성) 현재의 우르티야 정권이 바스티스 정권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라는 함성) 그런데 무기는 왜 숨깁니까? 지금이 독재정권입니까? (“아닙니다”라는 함성)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 정부와 맞서 싸우렵니까?

(“안 됩니다”라는 함성) 이제 검열도 없고,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자유를 누릴 것이며, 다시는 검열하지도 않을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박수) 이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고문도 없고, 정치적 구금도 없고, 살해도 없고, 테러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기쁨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지도자들은 모두 노동조합원으로 대체되었고, 곧 노동조합에서 선거를 공고할 것입니다. (박수) 시민의 권리가 모두 회복되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를 실시할 것인데, 무기는 왜 숨깁니까? 숨겨서 무엇에 쓰려고요? 공화국 대통령 자리를 찬탈하려고요? 평화를 위협하려고요? 폭력조직을 만들려고요? 또 다시 폭력이 난무하는 시절로 돌아가자고요? 또 다시 수도 길거리에서 매일 같이 총격전을 벌이자고요? 도대체 무기는 왜 숨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틀 전, 특정 조직의 분자들이 병영으로 들어왔습니다. 산 안토니오 병영입니다. 카밀로 시엔푸고스 사령관이 관할하는 병영이고, 또 전군의 총사령관인 내 관할의 병영입니다. 그런데 무기를 가져갔습니다. 소총 500정과 기관총 5정, 탄환 80,000발을 가져갔습니다. (“색출하라”는 함성)

솔직하게 말씀드려 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조국을 위해 싸웠고, 지금을 조국을 평화를 책임지고 있으며,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비열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총포를 색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바라는 바는 국민에게 얘기해서, 여론의 힘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범죄적 책동을 하고 다니는 지도자답지 못한 사람들은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이상주의적 전

사들은 -각 조직에서 투쟁한 사람들은 진정한 이상주의자입니다 - 알 것입니다. 그런 행위에 책임이 따른 다른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도발을 당하지도 않았으며, 무기 도둑질이라는 부당한 행위 앞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 쿠바에는 독재도 없으며, 우리들이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독재자가 되며, 힘에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일에 표를 못 얻기 때문입니다. (박수) 우리들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한마음이 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독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원칙은 별개로 친다고 하더라도, 힘으로 지위를 과시하는 천박한 짓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배격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들은 추잡하고 역겨운 독재자에 대항하여 기치를 들었습니다. (박수)

우리들은 결코 힘을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국민이 있고, 또 국민들이 우리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면, 인상을 찌푸리기만 해도 자리에서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수) 우리는 이를 의무로 여깁니다.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과업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쿠바를 돌아다니며 우리 조국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정직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아무 것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 “당신에게는 국민이 있어요”라는 함성)

우리는 결코 국민에게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특정인에게 특권을 부여한다든지, 불의를 용인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치부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력을 희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저를 그토록 사랑하고, 오늘 그런 애정을 분에 넘치게 보여주었는데도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애정과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에게 진 빚을 다 갚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긴 박수)

이러한 의무만 아니었다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러한 의무만 아니었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늘 받은 애정을 항상 간직할 것이며, 오늘 나를 연호한 뜨거운 함성으로 저를 부를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권력은 어렵고, 복잡한 임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만큼 어려운 임무하고 과업입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이며, 괴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맞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 시각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떠납니다.” (박수 다음에 “국부 만세”라는 함성)

우리가 힘에 관심이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쿠바에서 힘으로 일어서는 날, 저는 최악의 적, 제가 조금도 공감하지 않는 그 사람을 불러서, 국민에게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보시오. 힘을 다 가지십시오. 군대도 무기도 다 가지십시오.” 그리고 저는 편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무력으로 일어서는 날 저는 또 다시 시에라 마에스트라로 들어갈 것이고, 독재 권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권력도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저에게 과업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과업을 맡겼습니다. 공화국의 군조직을 재편하는 과업입니다. 저를 육해공군의 총사

령관직에 임명했습니다. (박수 그리고 “당연합니다”라는 함성)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직책은 저에게는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직책은 저에게 긍지나 허영이 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희생입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이 그 직책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긴 박수. “네”라는 함성)

우리는 12명으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12명이 군사 명령권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단 한 명의 포로도 살해하지 말라.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방치하지 말라. 단 한 명의 수감자도 때리지 말라. 우리들은 군에게 가르친 이런 사항을 공화국의 모든 군대 조직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박수)

다시는 포로를 때리거나 고문하거나 살해하지 않는 군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수) 게다가 우리들은 혁명가와 명예로운 군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도 않고 살해하지도 않은 명예로운 군인들은 군대에 남을 권리가 있습니다. (박수) 또한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살해한 사람은 그 누구도 총살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긴 박수)

아울러, 공화국 정규군에 편입하고자 원하는 혁명 전사들은 모두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현재의 계급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조국의 이익을 위해 과업을 수행하려는 모든 혁명 전사들에게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데, 자유가 있는데, 젊고 청렴한 사람들의 정부가 있는데, 국민이 만족하는데, 이 정부를 신뢰하고 군사력을 지휘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데, 곧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데, 무엇을 하려고 무기를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원하는지 아니

면 거리마다 소총으로 무장한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을 원하는지 말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이 동의하는지 아니면 자기 상관에게만 복종하는 사병(私兵)을 두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말해주기 바랍니다. (“아닙니다”라는 함성) 그렇게 해야 공화국의 평화와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라는 함성)

(누군가 “숙군”을 외친다.) 숙군 정도가 아니라 초강도의 숙군을 하겠습니다. (박수)

(“라울 얘기도 해주십시오.”라는 함성) 라울은 지금 몬카다에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상이 오늘 제가 국민 앞에 제시하고 한 문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길거리에서 총기를 치워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총기가 사라져야 합니다. (박수) 왜냐하면 이제 대적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항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상한 적, 반혁명세력과 싸워야 한다면 몇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싸울 것입니다. (긴 박수)

무기가 있어야 할 곳은 병영입니다. 아무도 사병을 둘 권리가 없습니다.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하고 다니는 분자들은, 어쩌면 내가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을 구실로 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대통령이 내 동지들을 임명한 것을 두고 정치적인 군대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정치적인 군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전 국민이 우리를 지지하는데, 그것이 정말 정치적인 군대라는 말입니까?

오늘 저는 국민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쿠바 어머니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박수) 쿠바 어머니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우리들 잘못으로 다시는 총성이 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언론에게도 호소합니다.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호소합니다. 여론의 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거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얻으려고 무장을 하고 위협하는 일은 부도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박수)

왜냐하면 특정 분자들이 무기를 감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추후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양보는 혁명의 도덕성을 깎아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수) 지금 할 일은, 공화국 정규군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할 일은, 모든 혁명전사는 정규군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무기를 병영에 반납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독재도 아닌데 무기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무기란 이유가 있을 때만이, 국민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만이 쓸모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 무기는 단지 살해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데 사용됩니다. (박수)

국민에게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국가의 법률을 존중하여야 치안이 유지됩니다. 여기에는 불량배도, 폭력배도, 깡패도 없습니다. 이유는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무기는 이제 혁명가들 손에 있습니다. 이 무기는, 저는 다시는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국민이 평화와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명하는 날, 국민이 요구한다면, 국민이 원한다면,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때 이 무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 의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박수)

지금 우리가 도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침착해서 도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고 있기 때문에 모종의 조치를 취하려고 성급하게 굴거나 당연한 조치라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끝까지 설득하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항상 그럴 것입니다만, 쿠바에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도발할 것이라고 두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내심이 동이 난다면 더더욱 인내할 것이며, 그 인내심마저도 없어진다면 또 다시 그보다 더한 인내심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원칙입니다. (박수)

이것이 무기를 손에 쥔 사람들,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도발도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물론 국민에게 민감한 이해가 위험에 처할 때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일이 표면화될 때, 국가 전체, 언론, 시민단체, 노동단체, 전 국민이 요구할 때, 전 쿠바인이 요청할 때만이 예외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국민을 찾아와서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조성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국민에게 이런 위험이 있다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애석한 일은,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른 이 혁명이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혁명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지하다시피 국민과 더불어, 국민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한 혁명이기 때문에 하찮은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 모범이 되었는데도 다시 총성이 울린다면 매우 애석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혁명은, 투쟁이 끝난 뒤에, 다시 혁명이 일어나고, 또 다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멕시코 혁명이든 다른 혁명이든 모든 혁명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지만 이 혁명은 예외가 될 것입니다. 혁명사에서 이례적이었듯이, 다른 혁명과는 달랐듯

이 말입니다. 여기서 총성이 더 이상 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이례적인 혁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혁명이 더 이상 총성이 울리지 않고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성숙된 양식이 경탄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시민정신, 우리 국민의 규율, 우리 국민의 정신이 말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국민에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쿠바 국민에 대한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 우리 국민을 위해 희생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이 전 언론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어 무척이나 기쁩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1,000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2줄로 서라고 부탁했습니다. 단 한 명도 부족하지 않았고, 저 혼자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사람들이 두 줄로 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없이 거기를 나왔습니다. 이것이 쿠바 국민입니다. 모든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수)

이제 환영과 박수갈채는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일해야 합니다. 내일은 다른 날과 동일한 날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자유에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못 가서 우리는 다른 문제를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다면 빚을 갚고, 전기나 음식이 있다면, 사실 이 문제는 정말로 혁명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쿠바 국민은 수만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젊은 장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열성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화국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로 확신합니다. (긴 박수)



‘대통령 우루티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아바나 시에 모인 군중들

게다가 대통령은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으므로 그 어떤 위험도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위험은 정권을 전복시킬만한 위험이 아닙니다. 정권하고는 수천 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한 위험은 단 한 방울일지라도 피를 흘릴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러나 공화국 대통령은 확고하며, 이미 모든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아니, 모든 국가는 아니지만 곧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승인할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우리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혁명군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지입니다. 조건부 지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시민의 권력을 위해 투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원칙은 그 어떤 고려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야망 때문

에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 우리들은 야망 없이 투쟁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그 어떤 쿠바인들도 이 점에 관해서는 하등의 의심도 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제 경우는, 조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제 동지들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화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 각료들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쉬지 않고 일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장담합니다. 오늘 쿠바를 떠난 사람이 2년 후에 돌아온다면 공화국을 몰라볼 것입니다.

저는 전 국민의 비상한 협동정신을 보았습니다. 언론도 만나고, 신문기자도 만나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모두들 도와주려고 열망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쿠바 국민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70년에 해당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군사 쿠데타로 25년이나 후퇴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25년이나 후퇴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우리는 50년을 앞질렀습니다. 공화국은 몰라볼만큼 달라졌습니다. 정치공작도 없고, 악덕도 없고, 게임도 없고, 도둑도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시작했는데, 벌써 공화국은 몰라볼만큼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커다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군대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우리의 장래 활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 국민을 위해 손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업 군인도 아니고, 군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잠깐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여기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함성) 제 말은 군인으로서 활동에 국한됩니다. 제게는 다른 꿈, 다른 종류의 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총을 쏘고 전투를 하고 불안이 조성되는 날이면 여기서도 할 일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박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함성)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혁명이 아닙니다, 동지 여러분.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 현재 공화국의 근본 문제는, 조만간 국민이 원하는 바는, 승리의 기쁨이 가시고 나면, 일자리입니다. 삶을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박수)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동지 여러분. 요즘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라디오나 신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룻밤에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 하루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은 집으로, 먼 거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계속합시다”라는 함성)

저는 ‘언론 앞에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30분이었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서 지금 1시 30분입니다. (“내일”이라는 함성) 예. 내일로 미뤄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신문이나 라디오나 기타 매체를 통해서 장관들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제 오랜 동지들입니다. 출신, 학교나 고향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저는 모든 쿠바인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관들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들은 각자 계획을 설명을 할 것입니다. 각료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혁명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대통령은 합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왜냐하면 조건 없이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7월 26일 운동’에서 대다수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협조를 부탁해서, 전폭적인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혁명정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하룻밤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쟁은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혁명



1959년 카스트로를 반기는 아바나 시민들

역시 하루 만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행사에서 국민에게 말했듯이, 장관들이 박식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에 장관을 역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낯선 일입니다. 물론 모두들 의욕이 넘칩니다. 이 점에서는 반군 사령관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카밀로 시엔푸에고스 사령관은 전쟁은 전혀 몰랐습니다. 무기를 다룰 줄도 정말 몰랐습니다. 체(Che)도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멕시코에서 체를 만났을 때 토끼를 해부하고, 의학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울(Raúl Castro) 역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에피헤니오 아메이헤이라스 역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전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령관, 콜롬비아로 진격해서 점령하십시오.” “사령관 라 카바냐로 진격해서 점령하십시오.” “산티아고를 점령하십시오.” 저는 사령관들이 점령할 줄 알았습니다. (긴 박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장관들이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몇 달만 지나면 국민이 제시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일처리 의욕과 국민을 도와주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 한 사람도 장관들의 전형적인 잘못을 범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도둑질”. “도둑질”이라는 함성) 예. 어떻게 아셨습니까?

특히 동지들의 도덕성, 정직성입니다. 박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박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는 장담합니다. 극도로 정직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항상 바라던 바가 정직한 정부 아니었습니까? (“예”라는 함성) 그러면 그들을 한 번 믿어봅시다. 그들을 믿고 기다려봅시다. (함성) 예, 대부분이 ‘7월 26일 운동’ 출신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다음에는 ‘27’, ‘28’ 출신들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쿠바에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장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혹시 ‘7월 26일 운동’ 출신이 공화국을 통치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라는 함성)

그렇다면 오늘 일은 다 했습니다. 실제로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는 잠도 배고픔도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

분들도 잠이 오지 않죠? (“예”라는 함성)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아바나 시민들의 행동, 오늘 대중집회, 수 킬로미터나 되는 먼 거리를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영화나 사진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국민 여러분이 조금 과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분에 넘치는 환대였기 때문입니다. (“아니오”라는 함성)

예, 우리들은 이 같은 대규모 군중은 다시는 목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차후의 일은 예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대규모로 모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들을 장지로 운구하는 그날, 또 다시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국민들을 절대 속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수갈채) □

[박병규 옮김]